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달기

아름다운 우리 도량 속리산 법주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각단 연등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정도량에 평화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고 만복을 지으시어
세세생생 불은 가피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웅보전 (광명의 등)** : 20만원
- **능 인 전 (진리의 등)** : 10만원
- **약 사 전 (치유의 등)** : 10만원
- **원통보전 (지혜의 등)** : 10만원
- **명 부 전 (원력의 등)** : 10만원
- **산 신 각 (수호의 등)** : 10만원
- **영 가 등 (왕생의 등)** : 10만원



불보살님의 살피심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떤 전각에 올리셔도 인연에 따라 두루 살펴주십니다.
등을 올리시는 것으로 이미 불은의 시작입니다.

※ 원주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5 | 4

벽화이야기 지옥형벌도 / **이달의 법문** 사월의 깨달음,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 / **주지스님 법문** 법주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 **수행여화** 창가의 매화는 피었더냐 /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 **부처님오신날 기획특집** 거룩하신 부처님 / **부처님오신날 기획특집**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 **걸망메고** 법주사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 개강 소식 / **법주사 템플스테이** / **승려복지기금 동참안내**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말사소식** /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생일불공** / **속리산 법주사 을사년 산신재일 기도** / **하안거 백일기도** /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달기**

●●벽화이야기

지옥형벌도 (명부전 벽화)



지옥의 형벌은 인과응보에 따른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이다.

지옥과보를 면하려면 공덕을 지어야한다. 흐르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 된다.

지옥의 형벌에는 크게 나누어서 십대지옥十大地獄이 있다.

도산지옥 刀山地獄 (칼산에 떨어지게 한다.)

화탕지옥 火蕩地獄 (끓는 물에 담근다.)

한빙지옥 寒氷地獄 (얼음 속에 묻는다.)

검수지옥 劍樹地獄 (칼로 몸을 벤다.)

발설지옥 拔舌地獄 (집게로 혀를 뺀다.)

독사지옥 毒蛇地獄 (독사로 몸을 감는다.)

거해지옥 鋸骸地獄 (톱으로 몸을 자른다.)

철상지옥 鐵床地獄 (뜨거운 쇠판에 올린다.)

풍도지옥 風塗地獄 (바람길에 앉힌다.)

흑암지옥 黑闇地獄 (암흑 속에 둔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5 4 | 통권 399호



2 **벽화이야기** 지옥형벌도

4 **이달의 법문** 사월의 깨달음,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법주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정덕 스님

8 **수행여화** 창가의 매화는 피었더냐 현진 스님

10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 - 연기법의 의설 - 세 번째 고광 스님

14 **부처님오신날 기획특집** 거룩하신 부처님 편집부

15 **부처님오신날 기획특집**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편집부

16 **걸망메고** 법주사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 개강 소식 무진 스님

18 **법주사 템플스테이**

19 **승려복지기금 동참안내 / 법주사 행사일정**

20 **법주사 소식 / 말사소식**

21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생일불공**

22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23 **속리산 법주사 을사년 산신재일 기도 / 하안거 백일기도**

24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달기**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9(단기4358)년 4월호 통권 399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사월의 깨달음,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연둣빛 새싹이 무성해지는 사월, 대지에는 따스한 기운이 넘쳐나고
온 생명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새롭게 태어납니다. 계곡의 물소리는 더욱 청아하고,
산새들의 노랫소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자연이 조화롭게 순환하듯 우리의 삶 또한 법(法)에 따라 흐를 때 평온하고 원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시며 그 길이 곧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 또한 괴로움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삶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로 헤쳐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어 온갖 시련을 겪으시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마음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워낼 때 본래의 깨끗한 자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갈등과 번뇌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이는 모두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하였습니다.
번뇌에 사로잡히면 고통이 따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온함이 깃듭니다.
사월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도 부드럽고 자비로운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보시(布施)의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말과 미소,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까지 포함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애로운 말은 꿀처럼 달고, 따뜻한 마음은 봄바람처럼 포근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진精進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수행이란 단순한 참선과 명상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선업善業을 쌓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집니다. 마치 농부가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듯이, 우리의 수행도 꾸준한 실천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봄이 무르익고 연등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합시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봄이 더욱 따뜻하고 빛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지스님 법문

법주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온 누리에 따스한 봄기운이 감돌며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거룩한 이 날을 맞이하여 법주사는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되새기며, 모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새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법주사의 경내에는 이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연등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등은 단순한 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입니다. 예로부터 불자들은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며 원을 세워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한 사람의 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세상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연등 공양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서원의 표현입니다.
경전에는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연등 공양의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작은 기름 한 방울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게 기름을 마련하여 등불을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 사원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도 그녀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난존자가 그 이유를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가난한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올린 것이니,
그 마음의 정성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이처럼 공양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를 보셨습니다.
연등을 밝히면 그 빛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경전에도 "등 하나를 밝히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번뇌를 사르고,
가족과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며,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원하는 것이 연등 공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밝게 빛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주사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연등이 떠올라 장엄한 빛을
이룰 것입니다. 그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원이 모여 이루어진 원력일 것입니다.
법주사 도량에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을 달며 소망을 속삭이고, 오랜 신심을 간직한 불자들은
두 손 모아 가족과 세상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마음이 연등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길을 밝히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주사에서 함께 연등을 밝히고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등 한 등이 모여 거대한 빛이 되듯,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원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한 해의 소망을 세우고 따뜻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인연을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주사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 여러분의 방문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창가의 매화는 피었더냐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여긴 아직 꽃소식이 멀었는데 어제는 제주도로 건너가 꽃구경을 실컷 하고 돌아왔다. 저 아랫녘 못지않게 그곳에도 유채꽃을 비롯하여 동백과 매화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수선화가 수줍게 피었고 목련이 봉우리를 살짝 열고 있었다. 때를 맞추어 들른 덕분에 이른 봄꽃을 만나고 왔다.

지난달(2월 말)에 제주 일정이 있어 며칠 머물면서 매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요동치는 날씨로 인해 개화 시기가 늦어 매화를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아쉬움을 달래지 못해 어제 당일치기로 후딱 다녀온 것이다. 요 며칠 기온이 풀어져 봄 날씨처럼 따뜻하여 제주의 매화가 만개했으리라 예상하고 달려간 것이다.

이번 탐매探梅 기행의 목적지는 대정읍 근처에 있는 '노리매梅 정원'이었다. 나는 그곳이 좋아서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매화 핀 풍경을 만나지 못했다. 수백 그루의 매화에서 꽃이 만발하면 어떤 그림일지 궁금하여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봐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시도하여 비로소 그 소원을 이룬 것이다. 봄꽃 탐방은 어영부영하다가는 그때를 놓쳐 애써 찾아간 발걸음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가 적절했다.

내가 그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다른 명소와 달리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익히 방송에 알려진 곳을 가보면 이건 뭐 꽃 구경을 하는지, 사람 구경을 하는지 모를 정도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도저히 '미음 완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곳은 정원의 구성과 식물의 요소들이 내 취향이기도 해서 가끔 즐기고 오는 장소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매화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어서 매화 마니아들은 반드시 가볼 곳이다. 청매, 홍매, 수양매 등 품종도 다양하여 실컷 암향에 취할 수 있다. 이번에 담장 길 따라 늘어진 만첩 수양매의 기품에 반하여 우리 정원에도 수소문하여 옮겨 심고 싶어졌다. 우산처럼 펼쳐진 그 매화 아래 서 있으면 저절로 매화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퇴계 선생은 누구보다 매화를 사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퇴계 선생이 환생했더라면 기필코 다녀갈 만한 매화 성지다.

그곳에 매화가 만개하면 어떤 장면일지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주 원 없이 관찰하고 왔다. 몇 년 치 볼 매화를 그곳에서 몰아쳐 보고 온 기분이다. 이것으로 올해 봄 이벤트는 완벽했다. 작년엔 가까운 천안 각원사의 겹벚꽃을 보며 봄날의 찬가를 연주했었다. 내 집에 있어도 봄꽃이 필 텐데 굳이 다른 곳의 봄 풍경을 만나러 가는 건 신춘의 기운을 느끼며 봄 마중을 일찍 하고픈 생각에서다. 세상 바쁘더라도 봄꽃 구경할 정도의 풍류와 운치를 누릴 줄 알아야 온화한 심성이 마르지 않는다.

봄꽃이 많다지만 그 격조는 매화와 견줄 수 없다. 그래서 매화는 고결하고 벚꽃은 화사하다. 이러므로 매화의 자태를 일컬어 옥골玉骨이라 부르기도 하며 맑은 손님에 견주어 청객淸客이라고도 한다. 특히 매화는 고목의 가지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 꽃망울이 좋다. 터질 듯 부풀어 있는 그 꽃망울에 꽃보다 진한 충만감이 깃들어 있다.

제주의 봄을 미리 보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정원의 매화 피길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것이다. 여기에 매화가 피면 나는 봄꽃을 한번 더 즐기는 호사를 누리는 셈이다. 제주에서 돌아온 날 때마침 신원사의 화광 노스님께서 〈왕유王維〉의 시를 보내 주어서 지인들과 음미해 보았다.

군자고향래君自故鄕來
응지고향사應知故鄕事
내일기창전來日綺窓前
한매착화미寒梅着花未

그대 나의 고향에서 왔다 하니
고향의 일을 응당 잘 알겠지
그대 떠나오던 날 창 앞의
설중매는 피었던가

여기서의 '기창綺窓'은 비단 커튼이 있는 창이므로 여인네의 공간을 말한다. 시인은 고향에서 올라 온 사람에게 자신의 집 매화 소식을 물어보면서 아내의 안부도 슬며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마 부인이 창을 열고 이른 봄날의 매화를 감상한다면 엄동설한 별고없이 안녕한 것이리라.

매화가 핀다는 것은 단순히 꽃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안부를 전하는 뜻도 있다. 이곳에 홍매화가 신비를 열면 꽃소식을 핑계 삼아 도반들의 근황을 물어볼 생각이다. 올핸 공양간 앞뜰의 붉은 매화가 얼마나 꽃을 달아낼지 궁금하다. 이 봄날 그대는 누구에게 안부를 띄우는가.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연기법緣起法의 의설義說 – 세 번째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지난 호에서는 법설의설경의
무명無明에 대한 의설(義說)을 살펴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행(行 saṅkhārā)'에 대한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緣無明行者, 云何爲行? 行有三種, 身行. 口行. 意行.
무명을 연한 게 행行이라는 자는 무엇이 행行이
된다고 일러주는가? 행行은 세 종류가 존재하는데,
신행身行과 구행口行, 의행意行이라고 한다.
필자는 지난 호에서 이 의설義說은 인과적因果的
사고방식思考方式 때문에 벌어진 잘못된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행(行 saṅkhārā)'은 기존에 쓰던
용어로, 우리가 아는 선업善業이나 악업惡業으로
대변되는 업(業 Karma 만들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온五蘊의 행온行蘊도 '실재實在하는
행업行業의 무더기(蘊)'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2 연기에도 행行이 등장하니 이것을
업業으로 생각한 나머지 신구의身口意 삼행三行으로
나누고서 삼업三業의 개념처럼 이해했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의설(義說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존의 익숙한 용어를 재정의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기에 이질감은 없었지만,
의설義說이 대량생산大量生産 되었습니다.

잡아함雜阿含의 번역자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에 '~者'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하는 것'이나 '~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자'라는
비하卑下의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기는 법설法說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설義說을 설명하는 내용이기에
문맥상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업業의 개념은 인과因果와 자연스레 결합하여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그럴듯한 업설業說로 발전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과
같은 뜻입니다. 이 생각은 자연스레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이어지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 악업惡業과
10 선업善業입니다.
천수경에도 십악참회十惡懺悔로 등장하는데,
"1. 살생殺生, 2. 투도偷盜, 3. 사음邪淫, 4. 망어妄語,
5. 기어綺語, 6. 양설兩舌, 7. 악구惡口, 8. 탐애貪愛,
9. 진에瞋恚, 10. 치암痴暗"이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십선十善입니다. 업설業說에 의하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은 상쇄相殺되지 않고
따로따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개의 선업'을 짓고
'1개의 악업'을 지었다면, 악업이 선업을
상쇄相殺하여 '9개의 선업'이 되지 않고
'선업善業 10개'와 '악업惡業 1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업의 정도에 따라 삼선도三善道
(인간人間, 아수라阿修羅, 천상天上)
삼악도三惡道(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라면 이 인과因果와 윤회輪廻를
별생각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여기에 몇 가지
논리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참회懺悔하면
업장業障이 소멸한다고 믿기에 부처님 전에 무릎이
다 닳도록 절을 하며 참회하고 있는데,
업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난감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아주 기막힌 비유가 있어 여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깨끗한 한잔의 물이 있는데, 검정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점점 까맣게 변할 것입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붓는다면 그 물이
다시 맑아지듯 우리가 지은 악업도 선업을
계속 부으면 선업으로 바뀐다는 논리입니다.
또 모래는 아무리 작아도 물에 가라앉지만,
큰 바위일지라도 큰 배에 실으면 뜬다고 비유하면서
불보살佛菩薩님의 강력한 위신력威神力만
의지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꽤 그럴듯한 이야기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선업도 짓지만, 악업도 지을 수밖에
없으니, 제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악업을
짓지 않고 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겐 선업과
악업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죽었을 때
'선도善道와 악도惡道 중에 어느 쪽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도 묘안妙案이 있는데, 중처편추重處偏墜라고
해서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업보다 선업이 더 많다면, 선업이 더 무거우니
천상에 먼저 태어났다가 선업이 다하면 지옥에서
남은 악업만큼 산다고 합니다. 꽤 그럴법한 이야기로,
절집 주변에서 대체로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어리석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지어낸 말이라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最善이라기보다 차선次善을 말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치 유치원생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 수준에 맞게 꾸며내어 말
해 주는 거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기회에
유치원을 벗어나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때입니다.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 진리를 향해
첫발을 디뎌 봅시다!
우리는 느낄 수도 없는 시간을 상상하여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레 인과因果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에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나를 소유"하고 사는 생명체를
'중생衆生'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과因果의 시각으로 살기에
열 가지 악업惡業이란 생각을 떨쳐내지 못해 죄짓고
참회하기를 반복하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아마 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참회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만 보인다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가
어쩔 수 없이 좁은 하늘만 보고 살듯이.
아무리 개구리일지라도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로부터
우물 밖 소식을 듣고 용기만 낸다면, 힘들더라도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가 일러주는 방법대로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벗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은 여전히 그 인과因果와 윤회輪廻로
만들어진 우물에 빠진 개구리에게 어서 벗어나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께서 인과법因果法을
설하셨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놀랍게도 경전엔 인과에 대한 비판만 즐비할 뿐
그런 표현이 없다는 사실에 참으로 난감했었습니다.
불교도佛敎徒라면, 기본적으로 '인과법因果法'에
대해 나름 이해도하고 수긍했을 것이기에,
누군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매우 강한
저항감이 들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며 30여 년의 세월을 보냈기에
그 마음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고구정녕苦口丁寧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언제나 독송하는
그 천수경의 십악참회十惡懺悔 뒤에 등장하는
참회게懺悔偈입니다.

백겁적집죄百劫積集罪
백겁을 쌓았어도 집기集起한 죄이고
일념돈탕제一念頓蕩除
하나의 기억(일념一念은 '한 생각'이라고 번역하지만,
단 하나로 작동하는 기억이다.)이라 단박에 쓸어서
제거된다네.
여화분고초如火焚枯草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멸진무유여滅盡無有餘
멸제(滅諦 = 멸滅은 멸성제滅聖諦, 곧
팔정도八正道 이다)가 쓸어버려 존재의 찌꺼기 없네.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심약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마음 작용 만약 적멸일 땐 죄 또한 소멸하네.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
죄가 죽고 마음이 적멸이면 양쪽 (양兩은
내입처內入處와 외입처外入處 이다)이 텅 빔을 갖추니
시즉명위진참회是則名爲眞懺悔
이것이야말로 이름하여 참다운 참회라네.

천수경의 십악참회十惡懺悔는 '모름(無明)'과
'진행行'이 얽혀 인과적사고因果的思考가 일어나
선악업善惡業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참회게懺悔偈는 '앎(明)'과 '진행(行)'이 얽혀서 연기로
이해하여 열반(滅)의 삶을 산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경經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2 연기의 행行'을 '선악善惡으로 구분되는 업業'으로
이해했기에 '신구의身口意로 짓는 행업行業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런 생각을
의설(義說 거짓 이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 통용되던 상카라(行 saṅkhārā)라는
용어에서 '무언가를 지어낸다'라는 의미만 떼어다가



재정의再定義해서 쓰셨고, 이것을 번역자는
행行으로 번역했습니다.
한자漢字의 행行이란 글자는 '시장市場의 사거리'를
본뜬 글자로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본 뜻이 있습니다. 필자는 부처님께서
재정의再定義한 상카라의 의미가 잘 담긴 '행行' 자를
뽑아낸 번역자의 안목에 이 글자를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사실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삶의 형태가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두렵지 않고 모르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캄캄하게 밤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언제나 걱정 근심을 달고
살아가지만, 깨달은 사람은 환한 대낮에 길을
걷는 것과 같아 두렵지 않고, 걱정 근심도 없어
평온합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정업正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업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악업惡業을 지었다고 후회하고, 참회懺悔하며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평온한
열반涅槃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법주사 응향각 노전이 정외지와井外之蛙를 꿈꾸며

거룩하신 부처님

편 집 부

신록과 꽃들이 가득한 5월에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진리의 몸 법신(法身)은 오고 감이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 화신(化身)은 시간상으로 오고 감이 있으십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모든 인류가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으로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설파하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가 평등하고 존귀하고 자유스럽지만, 자신의 행위와 말과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빈부귀천이 따로 없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에 의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나누고 봉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든지 외롭고 가난한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모두 자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가까이하고 실천한다면 지혜로운 삶이 되고,
무늬만 불자이고 부처님의 진리를 멀리하고 모르면 어리석어 불행해집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정해집니다.
자기 삶을 부처님 법에 따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남을 위한 한 가지 좋은 일(一日一善)을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전생의 일이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현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



보라. 내 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
〔욕지전생사(欲知前生事) 금생수자시(今生受者視)
욕지내생사(欲知來生事) 금생작자시(今生作者視)〕
불자라면 자신의 행위가 곧 자신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이 땅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지혜와 은덕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
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편 집 부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것은
모두 다 공양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등 공양'을 올리는데 그 참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선물할 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까 몇 번이고 생각한 후 그것을 선물합니다.
그처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도
'부처님께서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 미혹한 중생이 환한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등불을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의
밝은 성품인 부처님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서
등불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등불처럼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무명(無名)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서원으로 등을 밝힙니다.
부처님께 연등을 공양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부처님을
연등에 모셔서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힘으로써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매년 올리는 등 공양이지만 올리고 또 올려도
부족한 것이 등 공양입니다. 그것은 나의 번뇌가
끝이 없듯이, 나의 업장도 두텁고 두터워서
그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불보살의 가없는
서원도 끝이 없게 때문입니다.
절에 가서 연등공양을 올리고 나서 반드시
관등觀燈을 해야 합니다.
그냥 등 달았다고 돌아서지 말고, 내가 올린
연등 아래 다소곳이 서서 합장을 하고
이'등 공양'을 통해 가족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만나는 인연마다 부처님의 은혜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 부처님 인연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법주사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 개강 소식

무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는 2025년 법주사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의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불교대학에서는 첫 학기로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개설하였으며, 불교대학원에서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경전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불교대학의 첫 학기 강의인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신행信行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불교와 스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불교를 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단순한 종교적 인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부처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수행을 통해 중생을 위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불자로서의 신행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승은 "많은 대중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단순한 종교적 신앙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겪으신 갈등과 깨달음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원에서는 화엄경 강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불법佛法의 근본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주의 조화로운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경전으로, 불자들에게 심오한 깨달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불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경전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배움은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며, 지혜는 곧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비구들이여, 너희는 스스로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 배움이 없으면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바른 실천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불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 개념 중 하나로,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곧 수행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키우고 올바른 실천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주사 불교대학과 대학원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도 여러분께 열린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법佛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주사 불교대학과 대학원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마음을 **비우다 ~**  마음을 **채우다 ~**

속리산의 품에 안긴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법주사의 품 안에는 천 년의 세월 속에도 그 아름다움과 격조를 발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법주사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한 미륵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던 곳으로서 기도와 예불 수행 등
기초적인 불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승려복지기금 동참 안내

법주사에서는 법주사 재적스님들께서 노후와 병고에 대한 고민없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적스님들의 신뢰를 토대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승려복지계좌를 개설하여 복지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신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23-1288-03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2025. 4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3.4 합창단법회	2 5	3 6	4 청명 7	5 식목일 한식 8 약사재일 광명진언기도
6 9	7 10	8 11	9 12	10 13	11 14	12 15 보름
13 16 미륵재일	14 17 다도반법회	15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6 19	17 20 보청천문화축제	18 21	19 22 다라니독송기도
20 23	21 24 관음재일	22 25	23 26	24 27	25 28 도불기원법회	26 29
27 곡우 30	28 4.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다도반법회	29 2	30 3 신중기도 회향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2월 25일 법주사 방생법회



2월 28일 선희궁 아미타불 점안식



2월 28일 초하루법회

●●말사 소식



덕주사 정진스님 주지임명



수정암 석준스님 주지임명

미륵재일기도 – 4월 일정 : 4월 13일 일요일 오전10시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4월 일정 : 4월 5일 토요일 오후1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기도 – 4월 일정 : 4월 15일 화요일 오전10시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4월 일정 : 4월 19일 토요일 오후1시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4월 일정 : 4월 28일 월요일 오전10시

신중기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시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생일불공 – 생일부터 3일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법회일은 법회준비와 현장접수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법주사)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가사(袈裟)는 부처님의 옷이자 보살의 법의이며 스님의 법복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의식주인 음식, 약, 침구와 함께 부처님 당시부터 재가자가 승보에게
올리는 가장 귀중한 공양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의 표상입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교를
꽃피워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모든 공양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설가사공덕경에서 “가사불사를 발원한 이는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백 가지 복이 구름일듯이 일어난다”며 가사불사의 공덕을 전하셨습니다.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는 불기2569년 을사년 윤년을 맞아 대웅보전 세분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황금가사를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종단 최고의 가사명장이시자
법주사 율주이신 무상큰스님께서 평생의 원력으로 삼으셨으며 법주사의 역사와
불자님의 생애에 길이 남을 이번 불사에 동참하시어 잊혀져가는 불교의 전통을 지켜내고
한량없는 거룩한 복덕을 지으시어 세세생생 청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훌륭하도다. 해탈복이여! 위없는 복전의로다.
내 지금 이 기사袈裟를 받들어 수하노니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옴 마하가바바다 슛제 사바하. “

속리산 법주사 을사년 산신재일 기도



예로부터 큰 산의 수호신인 산신님께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산신기도는 그 성취가 빠르다하여
사업성취 학업성취 건강성취 자녀를 바라시는 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속리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명산의 하나로
속리산 산신님의 위신력에 관한 크고 작은 수많은 영험담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속리산 산신님께 지극정성 기도 올리시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수월하게 이겨내고
마음에 간직하신 소중한 소원들을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기도일정** : 2025년 **4**월 **9**일(수) ~ **4**월 **13**일(일) 산신재일 회향
■ **동 참 비** : 한가정 **3**만원

하안거 백일기도

하안거 백일기도는 오로지 깨달음의 수행전진을 통하여 영원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기를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늘 선방의 스님들처럼 하안거 기간 동안 부처님 전에 100일 간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법주사 하안거 백일기도에 동참하시어 기도하고 정진하는 삶,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베푸는 보시행을 이어가시는 자랑스러운 불자님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쉼 없는 기도 정진으로 신심을 다지고 닫힌 마음에 문을 열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준비된 불자님 되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 광명이
불자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 **기도일정** : 2025년 **5**월 **12**일(월) ~ **9**월 **15**일(월)
■ **동 참 비** : 한가정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